

뉴욕패션위크서 빛난 LG전자 '스타일러 미러'



스타일러 이용해 명품의류 관리 체험

LG전자가 4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뉴욕패션위크'에서 신개념 의류관리기 LG 스타일러를 이용해 명품의류를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했다고 16일 밝혔다.

LG전자는 행사 기간을 포함해 3일부터 12일까지 명품 빅데이터 의류 소매업체 WGA CA와 함께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WGACA 플래그십 스토어 안에 팝업 스토어인 'LG 스타일러 리프레쉬 스위트'를 운영했다.

LG전자는 이번 뉴욕패션위크에 맞춰 전면을 전신 거울처럼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러 미러'를 미국 시장에 출시했다. 국내에는 지난해 출시됐다.

LG 스타일러는 강력한 힘으로 옷을 털

슈퍼모델 니나 아그달(Nina Agdal)이 팝업 스토어 방문해 LG 스타일러의 편리한 명품의류 관리를 경험하고 있다.

/LG전자

어내는 '무빙행어', 물 입자 1600분의 1만큼 미세한 스텀으로 세균과 냄새 등을 없애주는 '트루스팀', 저온제습방식으로 옷감 손상 없이 간편한 건조가 가능한 '인버터 히트 펌프', 바지를 다림질하듯 눌러서 칼주름을 잡아주는 '바지 칼주름 관리기' 등 차별화된 방식으로 의류를 관리해준다. 집에서 간편하게 옷을 관리하려는 고객들의 수요가 늘면서 스타일러는 의류관리기의 대명사가 됐다.

LG전자 데이비드 밴더월 미국법인 마케팅총괄은 "이번 협업은 패션과 기술의 교차점에서 의류 관리의 미래를 보여준다"며 "고객들은 LG 스타일러를 이용해 소중한 의류를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LG이노텍, 나고야 자동차 기술 전시회 참가

LG이노텍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일본 아이치 현 나고야시 포트메세 나고야에서 개최되는 자동차 기술 전시회 '오토모티브 월드 나고야 2019'에 참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오토모티브 월드'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기술 전문 전시회로 매년 1월과 9월 각각 도쿄와 나고야에서 열린다. 1000여 개의 차량 관련 기업이 참가하고 업계 관계자 4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다.

LG이노텍은 처음으로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다. 나고야는 주요 완성차 및 차량 부품 기업 본사가 위치해 있고, 참관객 중 업계 관계자 비중이 높아 비즈니스 기회 창출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LG이노텍은 차량조명 고급화, 커넥티드 카 등 최신 자동차 트렌드를 반영해 전시 부스를 구성했다. 차량용 LED 모듈과 통신모듈 두 가지 테마로 최첨단 차량 부품 총 20종을 전시한다.

차량과 스마트폰 간 커넥티비티 구현을 위한 저전력 블루투스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이 기술로 차량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운전자 위치를 파악한 후 도어 개폐, 시동 등의 동작을 자동 수행할 수 있다.

LG이노텍 관계자는 "일본은 완성차 업체와 일본 내 차량부품기업 간 협력구조가 탄탄해 신규 진입 업체에게 요구하는 스펙과 품질 수준이 매우 높다"며 "고객에게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차량 부품을 통해 경쟁력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오늘의 운세 9월 17일(음 8월 19일)



36년생 필요 이상의 의무부여를 하지 마라. 48년생 사무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니 막혔던 일이 풀린다. 60년생 생각지도 못한 장애가 나타난다. 72년생 검은 색 옷 입을 일이 생긴다. 84년생 가까이 있다 해서 소홀히 대하면 낭패.



37년생 효도하는 자녀보다 잔소리를 하는 배우자가 낫다. 49년생 머리는 아프고 몸은 천근만근. 61년생 수영을 하려 바다에 나왔으니 일단 입수. 73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훼어야 보배. 85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뚫리는 법이다.



38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온다. 50년생 그냥 있어도 저절로 일이 잘 풀리니 운이 좋은 하루. 62년생 좋아도 쉽게 달려들지 마라. 74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 알아서 판단. 86년생 푸른색이 행운을 줄 것이다.



39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함부로 서명하지 마라. 51년생 버틸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다. 63년생 자식의 경제적 형편을 살펴보라. 75년생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 말고 매사 순서대로. 87년생 나의 약점을 보완하려면 공부하라.



40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해결. 52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허전하고 인생이 하루. 64년생 인수 운이 있으니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다. 76년생 귀인을 만나 장기투자를 하게 된다. 88년생 확실한 의사표현을 하라.



41년생 강하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53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고스란히 내게로. 65년생 현실이 힘들어도 내일을 생각하며 만족. 77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할것. 89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토지가 된다.



42년생 타인의 시선에 신경이 쓰인다. 54년생 비대해진 자아는 자신을 무너뜨린다. 66년생 없어진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어 본들 무슨 소용. 78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다. 90년생 새로운 정보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



43년생 지는 일은 내년을 기약하는 것. 55년생 무지가 지식보다 큰 확신을 주니 조심. 67년생 자식의 잘못은 어디에 말할 수도 없다. 79년생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나야 하는 하루. 91년생 새로운 관심거리가 생겨 소득발생.



44년생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바로 중지. 56년생 득과 실이 반반이니 평균은 되겠다. 68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있어도 나에게 유리. 80년생 판단력이 허려지니 서류를 잘 살펴라. 92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기부를 하는 것도 방법.



45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다. 57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낭비. 69년생 난관에 봉착하면 후배의 지혜를 빌려라. 81년생 초자일관하면 좋은 결과. 93년생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 아픈 것이 안타깝다.



46년생 물이 너무 맑아서 고기가 살지 못한다. 58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어 일을 주진. 70년생 성공한 사람 뒤를 따라가면 실수가 적다. 82년생 오늘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94년생 숫자 8이나 보라색이 행운을 준다.



47년생 사공이 많으면 의견통일이 어려우니 중심을 잘 잡자. 59년생 금전문제로 속이 상한다. 71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잘못도 생각. 83년생 날씨 탓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95년생 모방도 인생을 배우는 것이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텀魄!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쳐지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쳐지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쳐지지 않아야 합니다.

6	9	4	8		2			7
7					1		8	
1								
2			7	6				
	3	8			2			
	4	2			9			
					6			
						7		
9	6				8			
7		9	5	3	1	2		

3	9			2			4	5
5				3	1			9
				7				
	3					6		
2	1		5		7		3	
	4					2		
			8				2	
1		2	4	3	6			
4	5		2	6	1	4	7	

스도쿠 정답								
7	4	8	9	6	5	3	1	2
9	3	6	2	4	1	7	8	5
2	5	1	7	3	8	4	6	9
5	8	7	4	2	3	6	9	1
1	6	3	5	8	9	2	7	4
4	2	9	1	7	6	8	5	3
8	1	2	3	5	7	9	4	6
3	7	5	6	9	4	1	3	2
6	9	4	8	1	2	5	7	1

문제 제공= **날씨**

껍데기만 남은 '정규직화'



기자 수첩

나 유 리

〈파이낸스&마켓부〉

개명이 한참 유행하던 때 나는 이름을 바꿨다. 한자 이름이 상용 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할 때마다 애를 먹었기 때문. 당시 이름만 바꾸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소문이 있어 기대를 품었지만 아쉽게도 한자 이름 사용이 쉬워졌다는 점을 제외하고 내 생활도 성격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공공기관은 요즘이 개명시즌인가 보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제로화'에 따라 공공기관 656곳 가운데 484곳이 정규직으로 이름을 바꿨다. 국책은행과 예금보험공사를 포함한 이들은 2020년까지 전환목표인 20만5000명 중 85.4%인 17만46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들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 현재 산은은 'KDB비즈', 기은은 'IBK서비스' 수은은 '수은플러스', 예보는 '예율FMC'라는 이름으로 자회사를 마련, 정규직화를 시도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

인'을 보면 파견·용역 노동자는 직접고용·자회사·사회적기업 세 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직접 고용을 할 경우 장기적으로 퇴직충당금이 부채로 잡혀 경영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정작 이름이 바뀐 그들의 일상은 달라진 부분이 없다. 그들이 요구했던 임금·복지·고용안정 등 모든 것이 그대로다. 회사로 전환한 직원의 임금은 평균 10.96% 인상됐지만 외려 인상폭이 들쭉날쭉해졌다. 자회사 중엔 쟁의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불만을 토로하기도 어렵다. 자회사 설립 및 위탁의 근거가 없다보니 정권 기조가 바뀌거나 필요에 따라 해당 자회사는 언제든 매각될 수 있어 고용도 불안정하다.

그렇게 풍크빛 미래로 변화만 가득할 것 같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소문만 많던 빈껍데기가 됐다. 어느 누구도 정규직이라 말하고 있지만 정규직의 삶은 누리지 못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나처럼 단순히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꺼끄러워 바꾸기로 한 것이었던가. 공